

鄉歌 本文의 訂誤를 爲하여

—普賢十願歌의 境遇—

金 完 鎮*

1

文字로 記錄된 資料들을 다름에 있어 그 本文의 正誤를 確定짓고 나서 그 다음 作業을 進行시켜야 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흔히 한다. 常識的으로 누구나 首肯할만한 論理요 *textual criticism*이라는 낯익은 말이 意味하는 것의 一部이기도 하다. 그러나 實際로 研究에 從事하다 보면 作業의 順序가 그렇게 教科書的으로 定해지는 것이 아님을 體驗하게 된다. 原文에 대한 批判과 訂誤는 研究의 거의 끝마무리 段階에서 行해지는 일이 적지 않음을 經驗을 通하여 말할 수 있다. 極端的인 境遇, 그것은 研究의 出發이 아니라 그 終結을 意味하게도 된다.

筆者가 鄉歌의 解讀 作業에 손을 대면서 素朴하게 前提하기는 三國遺事 所載의 鄉歌 14首는 一然이 三國遺事に 收錄하기에 앞서 이미 文字로 記錄된 것이었고, 그 傳承 過程中에 相當한 轉訛가 있을 것이 豫想되어 慎重한 本文 批判이 必要할 것인 反面에, 均如의 普賢十願歌 쪽은 그런 類의 危險이 적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實際로 解讀 作業을 進行하면서 생긴 心證은 豫想을 뒤엎고 普賢十願歌의 文面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곳이 꽤 있다는 것이었다.

本稿에서는 問題를 普賢十願歌 쪽에만 局限시켜 말하기로 하거니와, 筆者가 推定하는 誤字가 생기게 된 契機를 筆者는 다음과 같이 想定한다. 普賢十願歌가 그 作者 均如 在世時에 刊行되고 그 自身이 校正에 臨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誤字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草稿 乃至

* 人文大 教授(國語學專攻)

는 그 轉寫本이 傳存되다가 後世의 사람의 손에 印行될 때의 誤讀, 特히 漢字草體에 대한 誤判이 致命的이라 할 誤字를 낳고 그로 因해 二十世紀의 解讀者들을 當惑시키고 또한 誤導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但, 古典 文面の 訂誤 作業에는 스스로 지켜야 할 限界가 있다고 생각한다. 研究者가 아무리 自信이 있다 하더라도 그 訂正 作業은 注記의 形式 以上の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古典의 文面은 그 誤字까지를 包含해서 不可侵의 것이요, 後世人이 함부로 變改할 것은 아닌 것이다. 六堂이 校勘한 三國 遺事에서 우리는 매우 遺憾스런 一例를 볼 수 있는데, 鄉歌에 쓰인 ‘支’字와 ‘攴’字의 差異를 抹殺하고 ‘支’字로만 統一해 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同意할 수 없는 일이지만, 設令 그의 認識에서 ‘支’와 ‘攴’이 同一視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百步를 讓하여 그의 判斷이 옳았다 하더라도 原文을 提示해 주는 責任을 진 자리에 그 差異를 抹殺시킬 權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한 劃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半劃의 差異이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른 字이고 다른 價値를 가지는 것으로 判斷될 때, 그야말로 魚魯不辨의 責任은 벗을 길이 없을 것이다.

2

普賢十願歌 其三인 이른바 廣修供養歌의 本文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火鉢執音馬
佛前燈乙直體良焉多衣
燈炷隱須彌也
燈油隱大海逸留去耶
手焉法界毛叱色只爲拏
手良每如法叱供乙留
法界滿賜仁佛體
佛佛周物叱供爲白制
阿耶 法供沙叱多奈
伊於衣波最勝供也

參考로 故 梁柱東 博士의 解讀을 보면¹⁾

1) 「古歌研究」, 721面.

보저 자닥며
 佛前燈을 고티란대
 燈炷는 須彌어
 燈油는 大海 이부가라
 소는 法界모도록 하며
 소내마다 法入供어무
 法界 초산 부터
 佛佛 도모 供어술져
 아오 法供아 하나
 이 어의바 最勝供어

라 되어 있다.

第一感에 釋然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第五行과 第六行 序頭에 보이는 ‘손’(手)의 存在다. 佛前燈을 고치는 데에 손이 使用되는 것은 當然하다 치더라도 法界 끝나는 날까지 持續되라고 祝願할만큼 重要的 象徴이 되는 것일까 疑心이 가는 것이다.

崔行歸의 譯詩 該當 部分에도 ‘手’字는 나타나지 않거니와

至誠照明佛前燈 願此香籠法界興
 香似妙峯雲雲鬘 帝 油如大海水洪澄
 彌生代苦心常切 利物修行力漸增
 餘供取齊斯法供 直饒千萬總難勝

한편 无涯가 引用한대로의 華嚴經 該當 部分에도 ‘手’에 關한 言及은 全혀 찾아 볼 수 없다.

復次善男子，言廣修供養者，所有盡法界虛空界十方三世一切佛刹極微塵中，一一各有一切世界極微塵數佛。……我以普賢行願力，故起深信解現前知見，悉以上妙諸供養具爲供養，所謂華鬘 雲鬘 天音樂鬘 天傘蓋鬘 天衣服鬘 天種種香 塗香 燒香 末香如是等鬘，一一量如須彌山王，然種種燈，酥燈 油燈 諸香油燈，一一燈炷，如須彌山，一一燈油，如大海水，以如是諸供養具，常爲供養。善男子，諸供養中，法供養最。……何以故，以諸如來，尊重法故，以如說修行，出生諸佛故，若諸菩薩，行法供養，則得成就供養如來，如是修行，是真供養故，此廣大最勝供養。(華嚴經 卷四十·普賢行願品)

譯詩나 佛經 原文에는 廣修供養歌에 反映되지 않은 ‘香’이 存在함을 筆者

는 注目한다. 그리고 譯歌에서의 ‘香’字의 出現이 두번이라는 것도 奇妙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는 廣修供養歌에 보이는 두개의 ‘手’字가 ‘香’의 轉訛일 것으로 생각한다. 均如傳의 刊行이 均如 自身의 手蹟을 바탕으로 普賢十願歌를 收錄하였다면 刊行者의 誤讀으로 생긴 結果라 할 수 있겠고, 模寫된 寫本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옮기 쓰는 過程에서의 過誤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香’字의 草體는 ‘手’字의 草體에 두개의 點이 더해지는 것으로 混同될 可能性이 높게 되어 있다. (그림 1을 參照)



그림 1.

結局 이 訂誤의 結果로 第五行과 第六行은 各各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香隱法界毛叱色只爲旅
香良每如法叱供乙留

法界와 함께 久遠하라고 祈願하는 對象이 ‘香’이 됨으로써 文章의 脈絡이 自然스러워지고 佛經의 趣意에도 合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第六行의 境遇 ‘手’字를 그대로 놓아 두면 意味上的 硬塞이 더욱 甚한 것으로 判斷된다. 손에다가 法供을 담는다는 것도 異常하러니와, ‘佛前燈을 고티란대’로 보아 登場人物은 單數일 수 밖에 없는데, 기껏 두개의 손을 가지고 ‘마다(每如)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이다. 華嚴經에서 이르는 가지가지 香들을 前提할 때 비로소 ‘每如’가 自然스럽게 살아 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普賢十願歌 其二 卽 稱讚如來歌 第九行에 나오는 ‘間王’이라는 名詞도 앞에 말한 ‘香→手’와 같은 過程을 거쳐 생긴 誤記라고 推定한다.

間王多留讚伊白制

의 ‘間王’이 譯詩中の ‘頌詠盤王刹上風’에서 ‘盤王’에 對立되는 것임은 疑

心할 餘地가 없음에도 不拘하고, ‘閻王’을 ‘閻王’으로 남겨 두고 對하였기 때문에 解讀에 無理한 論理가 登場할 수 밖에 없었다. —例로 无涯의 境遇를 보면²⁾

(1) 閻王

閻 訓借「시」西의 戲寫. 王 音讀. 「閻王」은 字義대론 義未詳이나, 譯歌(首引)에 이를「覺帝·豐王」이라 하였고 華嚴本文엔「讚歌一切如來」라 하였은즉 「閻王」은 곧 「佛」의 義에 不外한다. 생각컨댄 「閻」訓「시」(一·五·3 史伊) 「西」의 古音「세」(九·二·1 西方)와 通함으로 「西王」(세왕)을 「閻王」으로 戲寫할 일 것이다. … 「西王」은 佛典에 用例가 없으나 「西」는 母論「西方·西天·西域」의 義임으로 「西王」은 「西方淨土王」 곧 「佛」의 義의 俗語이니, 마치*「西主」의 稱과 一般이다. 俗用語「西往」(세왕)도 其實 佛典에 없는 東俗의 造語이다. 이미 「西主·西光·西利·西方師」等 熟語가 있는 以上 佛을 「西王」이라 俗稱함은 推測키 不難하다.

「古歌研究」다운 一聯의 論理를 볼 수 있으나, 지금의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內容은 아니다. 于先 ‘閻’字의 訓을 ‘시’라고 한 것이 잘못이니 ‘閻’은 中世에 있어 ‘스시’였음을 指摘함으로써 그 誤謬임을 밝힐 수 있다. 均如가 數百年 뒤에 半齒音 ‘△’이 母音間에서 脫落되며 單音節化될 것까지 豫見하고 ‘시’를 위하여 ‘閻’字를 썼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西王’이라는 單語가 정말 있었다면, 東俗에서 생긴 것이든 西土에서 轉來된 것이든 漢字語에 틀림 없는 以上 그대로 ‘西王’이라 쓸 일이지 窘塞하게 ‘閻王’이라고 表記했을 까닭이 없는 것이요, 都是 漢字語를 그렇게 表記한 類例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閻王’의 ‘閻’字는 그 草體가 ‘醫’字의 草體와 恰似한 데 말미암은 誤記에 不遇한 것이라고 筆者는 推定한다. 그러니까 ‘閻王=醫王’이라고 보는 것으로 崔行歸의 ‘醫王’은 均如의 十願歌 本文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라는 말이 된다.³⁾

普賢十願歌 其七 請佛住世歌 第五行

曉留朝千萬夜未

에서의 ‘留’字도 轉訛의 結果라 보여지는 例이다. 无涯는 이 句節을 ‘새배

2) 前掲書, 714-715面.

3) 靈는 醫의 異體이다.

루 아춤바딕'라 읽고 있지만, 그가 理解한 대로라면 오히려 '새벽과 아침 밥으로'와 같은 表現이 期待되는 자리이거나, '朝于萬'三字를 '아춤'이라고 읽는 것도 順理는 아닌 것이다. '아춤'을 意圖했다면 當然히 '朝音'이라고 썼어야 하는 것으로 '身萬隱'의 '身萬'을 '몸'이라고 解讀한 것과 함께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는 態度인 것이다.

筆者의 推定으로는 均如가 이 자리에 表現하려고 한 것이 '붉은 아춤 가문 바딕'였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表現의 對位法으로도 整齊된 理解가 되는 것으로 믿는다.

'붉은'을 本是 均如가 '曉番'이라고 表記하였던 것인데, '番'字와 '留'字의 字形 相似로 '留'字로 誤讀되었으리라는 것이 筆者의 論理다.

留 甫 (俗體) 留 (草體)

그림 2

'于萬'은 '朝'에 붙는 末音 添記가 아니라 '夜'를 修飾하는 形容詞의 表記이다. '于萬'은 鄉歌 25首 全體를 通하여 지금의 例까지를 合하여 都合 三例가 認知되는데, 意味는 다르지만 모두 '가문'(또는 '마문')이라고 읽힐 存在들인 것이다.

二于萬隱吾羅(禱千手觀音歌)
際于萬隱德海盼(稱讚如來歌)

確認添記(筆者 個人的 用語)로서의 '隱'字가 하나 더 붙었을 뿐 '于萬'과 本質的으로는 같은 表記인데, '于'를 訓借하여 '가'를 나타내고 '萬'으로선 '문' 또는 '만'을 表記하고 있는 것이다. 禱千手觀音歌에서의 '마문'은 動詞 '감다'의 過去形으로서 '두 눈을 다 감은' 即 '두 눈이 다 먼 나'에 대한 慈悲를 呼訴하는 것인 反面에, '際于萬隱'이나 '于萬夜未'에서의 '가문'은 形容詞 '감다'(玄)의 冠形詞形으로서 '끝이 까마득한 바다'와 '깜깜한 밤'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筆者는 몇 字 더 誤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운

데 比較的 確實해 보이는 것을 二三 追加하면 다음과 같다.

阿耶 法供沙叱多奈(廣修供養歌 第九行)

嫉妬叱心音至刀來去(隨喜功德歌 第十行)

際毛冬留願海伊過(總結無盡歌 第四行)

첫째 例에서의 ‘法供’은 ‘佛供’이라야 文脈이 맞게 되어 있다. 같은 노래 안에서 ‘法供’은 第六行에 ‘手良每如法叱供乙留’와 같이 ‘叱’을 中間에 받쳐 적고 있기도 하려니와, 많은 ‘佛供養’ 중에서 ‘法供이 最勝供’이라는 文脈에서 ‘法供’이 다시 ‘ 많다’의 主語로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컨대, ‘佛供’의 ‘佛’이 略字로 ‘仏’로 적힌 것을 ‘法’字의 草體로 錯覺하며 앞에 나오는 ‘法叱供’에 이끌려 ‘法供’으로 遁甲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例에서의 ‘至刀來去’를 無涯는 ‘닐도올가’로 읽고 있으나, 이러한 解讀은 形態論의인 觀點만으로도 받아 들이기 힘들다. 動詞 ‘니르다’의 語幹은 ‘니를-’乃至 ‘니를-’이지 ‘닐-’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位置에 助詞 ‘도’가 介入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여기서의 ‘刀’는 ‘刃’의 잘못으로 認識될 存在다. ‘刃’의 訓 ‘날’을 ‘물’로 利用한 表記로서 ‘니를’+‘올가’로 읽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文字 그대로 ‘니를-’과 ‘오-’의 語幹 複合인지, 아니면 ‘니를올가’로서 ‘니를-’에 意圖形 接尾辭 ‘-오-’가 結合한 것인가는 그 다음에 判斷할 問題가 될 것이다.

셋째 例에 나오는 ‘毛冬留’의 ‘留’는 이미 다른 例에서 본 바와 같이 ‘畱’의 誤讀에 말미암는 것으로 본다. 無涯도 이것은 ‘모둘’이라는 冠形詞 形으로 읽고 있지만, ‘留’를 ‘ㄹ’을 위한 이른바 略音借라고 하기는 어렵다. 筆者는 一般的으로 略音借라는 概念을 拒否하는 態度를 지니고 있거니와, 아직은 起原이 明確하지 않은 ‘叱’字와 ‘尸’字 以外에는 한 子音만에 對當되는 記號란 달리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勿論 先輩들이 이미 밝힌 誤字, 例하면 ‘切德→功德’과 같은 部類의 것들은 至極히 分明한 것으로 追認만으로 足할 것인데, 이런 誤字는 筆者가 想定한 것과 같은 複雜한 背景을 前提로 하지 않아도, 一般的으로 생길 수 있는 平凡한 存在들이기 때문에, 같은 誤字라 하더라도 그 性質이 다르다 할

것이다.

3

以上은 普賢十願歌 本文中에서 誤字로 推定되는 몇몇 例를 뽑아 그러한 誤字가 생기게 된 經緯를 推定해 본 것이다. 解讀에 從事하는 사람으로서의 第一信條는 原文의 表記에 忠實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그에 앞서 忠實의 對象이 될 原文의 確保가 優先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鄉歌에 關한 限, 不幸히도 우리에게는 一次 史料가 아닌 二次, 三次의 史料 밖에 確保되어 있지를 못하다. 三國遺事 所載分이나 均如傳 所載分이나 그것들이 原作者의 表記 그대로가 아닌 轉訛를 包含한 不完全한 文面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筆者의 判斷이며, 따라서 이러한 誤字들을 訂正하여 原來의 表記를 複原시킨다는 것은 鄉歌 解讀 作業에 있어서의 重要한 一部分을 차지하는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러한 誤字說을 提起하면서 念慮되는 것은 이것이 契機가 되어 過度한 誤字說 濫發의 弊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點이다. 誤字의 存在를 確認한 사람의 眼에는 다른 모든 字들이 다 疑心스럽게 비취게도 되겠지만, 充分한 論理的 뒷받침이 서지 않는 限 誤字說은 우리가 가장 警戒해야 할 存在인 것이다. 자칫하면 解讀이 어려운 部分에 대하여 自己 나름으로 따로 생각한 內容을 假託하는 方便으로 誤用될 念慮가 크기 때문이다.